

釜山日報

(2000年7月1日 第2面)

- 釜山～日本 海底トンネル推進
- 安市長が大統領に建議

釜山市は南北経済協力と共に京義線が復旧することに備え、釜山～日本間の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本格的に推進させることになった。

1日、市によると、去る28日、青瓦台で開かれた民選団体長の会議で、安相英市長が金大中大統領に南北横断鉄道の開設による釜山～日本間の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建議、肯定的な返答を受け取ったとのことである。

安市長は、“金大統領は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れば、日本の物流をたやすくわが国にもちこむことができ、釜山の発展にも大きく寄与するであろうと語った”としている。また、“京義線と京元線の終着点が釜山となり、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日本から釜山を経てユーラシア大陸まで連結する東北アジア黄金シルクロードが誕生するはず”と語った。

釜山日報 2000/07/01 002면 10:29:59

- 부산～일본 해저터널 추진
- 안시장 대통령에 건의

부산시는 남북경협과 함께 경의선과 경원선이 복구될 것에 대비, 부산～일본 간 해저터널 건설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.

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단체장 회의에서 안상영 시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남북횡단철도 개설에 따른 부산～일본간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,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.

안시장은 "김대통령이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일본의 물동량을 쉽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으며 부산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"며 "경의선과 경원선의 종착점이 부산이 되는 만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황금의 실크로드가 탄생하리라"고 말했다. 이정호기자 lee62@